六祖壇經에 대한 분석심리적 이해
- 識心見性 自成佛道을 중심으로 -

李文盛**

서 론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실현(自己實現)은 분석심리학 이론에 대한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신의 끝이나 적극적 명상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지만 자아를 초월하는 자기본원(自己原型)의 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불교 에서도 불립문자(不立文字) 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 하여 문자를 내세운 알음알이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 본성(本性) 을 보아 부처가 되고자 한다. 마음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유사점으로 인하여 선불교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이해해보고 싶었다.

육조단경은 중국 선종(禪宗)의 제 육조(六祖)라고 일컬어지는 혜능(慧能)이 조계산에서 문인들에게 설법한 것을 기록한 자서전적 경전이다. 이 경은 불교에 대한 중국적인 수용형태를 대변해주는 고전이며 불교가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음은 육조 혜능의 말후 이백여 년 만에 이른 바 오가철종(五家七宗)의 선종이 중국을 폐미할 때, 거의 모든 후학들이 혜 능을 잊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1)

그리고 한국불교에 대한 혜능의 영향력도 절대적이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능이 혜능이 머물던 조계산(曹溪山)의 이름을 따서 조계산 송광사의 정혜 절사를 도모하였으며, 그때 그가 후학을 지도하던 귀감이 된 것은 바로 육조

*韓國 융 연구원 修了論文(지도 : 李守永)
**백산산경사산관의원
1) 정병조 역해, 육조단경, 한국불교연구원, 1996, 7쪽.
단경과 금강경이었다. 그리고 고려 말의 선승(禪僧) 태고 보우(太古 普愚), 나옹 혜근(懶翁 惠勤) 등이 중국에 유학하되던가 귀국한 후, 모두 육조 혜능의 후예 염제의 법손(法孫)임을 자부하였으며 2) 태고 보우가 전래한 염제종은 조선 선종의 주류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의 이름도 태고 보우 국사가 구산선문을 통합하여 조계종이라 하면서 연유한다.3)

혜능(惠能, 638-713)은 중국 당나라 시절의 승려로서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경시된 남방의 소수민족 출신이었다. 혜능의 집안은 매우 가난하였으며, 그의 부친은 일찍 죽어 그의 노모(老母)와 서로 의지하여 살다가 뒷날 남해(南海; 지금의 광둥 성 光州市)로 가게 되었다. 혜능은 무일푼이어서 맷부모를 벗어서 생활하던것이 정체진다. 이러한 과정의 표현은 혜능의 조사선(祖師禪)과 선수계의 여래선(如來禪)을 구별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혜능이 평민으로서 종교의 영수(領袖)가 될 수 있다는 기본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여래선이 항상 귀족계층에서 유행된 반면에 조사선은 외진 곳의 일반 민중 속에서 유행되었고, 특히 초기 단계에는 원시기독교 처럼 하층민의 종교였다.6)

신수 등의 여래선은 점숙적(漸修的)인 면에서 달리 이래의 선법을 발휘하였고, 혜능의 조사선은 돈오(頓悟)와 무수(無修)의 각도에서 선의 기본 정신을 세웠다. 신수 등이 선과 정치의 결합을 일으킬 때, 혜능은 오히려 선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결합시키고, 신수가 진심(真心)에 대해 형식상의 토론을

---

2) 같은 책, 8-9쪽.
3) 조계종 http://www.buddhism.or.kr
4) 냉은 의미의 조사선은 혜능이 세운 선법을 가리키며 남약계와 청원계를 거쳐는 오가분등의 선법을 포괄한다. 즉은 의미의 조사선은 혜능 자신의 선법과 기본적인 혜능 선법의 전통을 가진 선승들의 선법이다. 이러한 선승들은 주로 하락신회와 대주세해를 일원한다. 오가분등의 선법을 본립선이라고 따로 나누기도 한다.isans(金천무 역), 祖師禪, 옥주사, 21-22쪽.
5) 여래선은 인도불교 중의 선법 및 중국에 전래된 불교가 선종을 창립하기 전의 선법, 특히 혜능님중 창립 이전의 선법을 포괄한다. 그러나 혜능의 남중선 창종 이후에도 선의 적인심(自指人心)과 돈오무수(頓悟無修) 등의 종류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았던 일련의 선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래선 통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가계에 나열된 사조선 가운데도 선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결합시키고, 신수가 진심(真心)에 대해 형식상의 토론을
6) 섬수(金천무 역), 祖師禪, 옥주사, 2000, 110-112쪽.